

미국 정유기업 가동률 96% “한계”

WSJ, 생산량 증대 불구 공급부족 지속될 듯 ... 휘발유 가격 사상최고

미국 정유기업들의 설비가동률이 96%로 거의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수요가 급감하지 않으면 휘발유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7일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증산을 이행하더라도 미국 정유기업들은 원유를 휘발유로 정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적자를 내는 정유기업들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정유기업들이 휘발유 정유량을 늘리더라도 공급부족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유기업들은 환경당국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정유기업들이 이익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며 정유업계를 비난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미국의 휘발유 수요는 2004년 1-5월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했으며 국제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

지난 주말 미국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선물가격은 배럴당 38.49달러로 지난주 중 최고치인 42달러에서 9%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한다면 휘발유 가격도 몇 주 동안은 다소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휘발유 시장이 생산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등한 현재의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조안 쇼어 분석가는 “시장은 어느 때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다만 때때로 다소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4/06/08>